

## [인터넷]

2017/06/19

인터넷/게임/미디어

김민정

(2122-9180)

mjkim@hi-ib.com

오대식

(2122-9212)

dsos@hi-ib.com

### Q.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 의미는?

#### A. IT사업자의 시장영역 확대와 상위업체의 집중도 강화

##### ■ 아마존, 미국 식품체인점 홀푸드 인수

지난 16 일 아마존은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체인점 홀푸드를 137 억달러(약 15.5 조원)에 인수하기로 발표했다. 전일 증가 대비 27%의 프리미엄을 적용한 주당 42 달러의 기업가치이다. 홀푸드는 1980 년 설립된 미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유기농 슈퍼마켓으로 대도시 고소득층을 공략해왔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오프라인 매장 460 여개를 보유, 지난해 매출액은 160 억달러로 미국 내 30 위권 유통사업자이나 경쟁 심화로 최근 4 년간 매출이 연속 감소했다. 아마존과 홀푸드가 합쳐지면 미국 슈퍼마켓 시장점유율 4%를 차지하고 순위는 5 위권으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아마존의 온라인 운영 경험과 홀푸드의 브랜드 역량이 시너지를 창출하면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마존은 구체적인 홀푸드 운영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쇼핑과 연계한 상품 픽업 및 반품 장소, 물류 기지로의 활용이 예상된다. 이번 인수 소식이 전해진 당일 아마존과 홀마트의 주가는 각각 +2.4%, +29.1% 상승한 반면 월마트를 비롯한 기존 유통업체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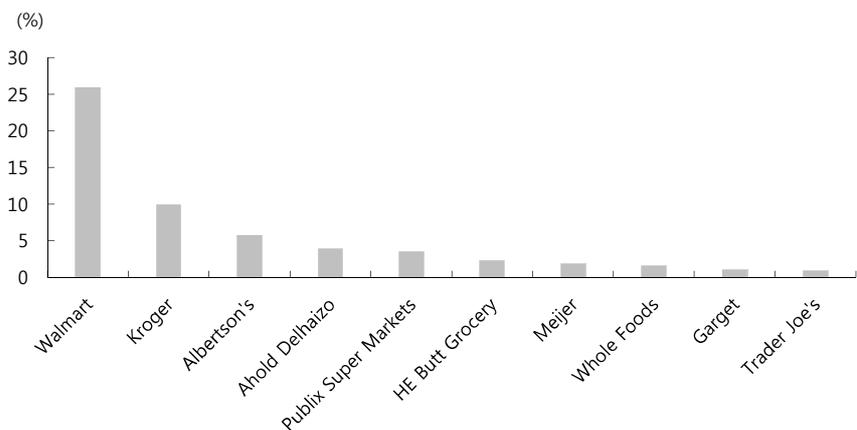
##### ■ 오프라인 판매 시장 침투 가속화

아마존은 10 년 전부터 Prime 멤버를 대상으로 식료품을 배달하는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시'를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계산원이 없는 식료품 매장 '아마존고'를 오픈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5 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신선식품을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아마존 프레시 픽업'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마존의 온라인쇼핑몰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오프라인 시장까지 잠식시키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판매는 오프라인 시장 침투가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신선식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성향이 강하여 미국 식료품 시장 8000 억달러에서 온라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아마존은 홀푸드 인수를 통해 식료품 판매 운영 노하우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확보하여 온/오프라인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홀마트를 통해 전국 체인망, 식료품 부문 전문가,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

## ■ IT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사업 영역 중횡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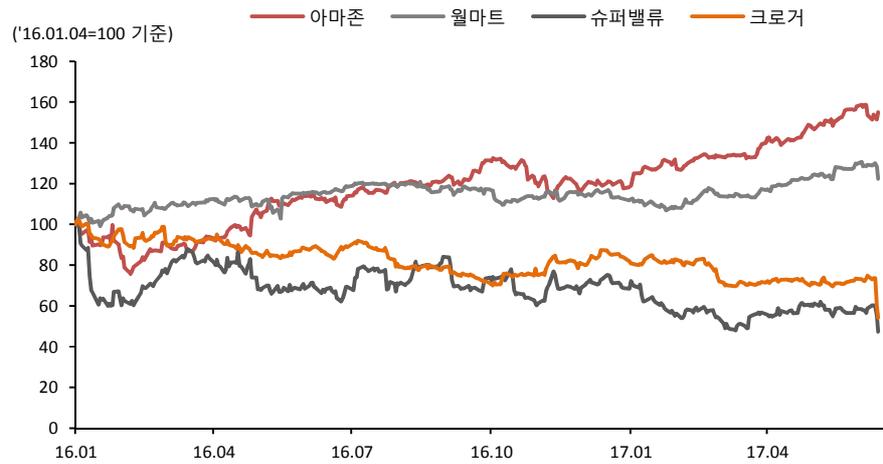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온라인 상거래를 비롯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다. 우주 탐사 및 여행을 위한 스타트업 '블루 오리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으며, 215억달러 규모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업무용 메신저 스타트업인 '툴인슬랙' 인수 또한 검토하고 있다. IT 사업자는 풍부한 자금력 및 빅데이터,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 IT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벗어나 무인항공기, VR기기, 자율주행차 등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거나 유통 플랫폼에서 벗어나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또한 결제 시장에도 진입하여 기존 금융업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상위업체로의 집중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광고매출과 상품 유통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될 전망이다.

<그림 1> 2016년 미국 식료품 소매업 시장점유율



자료: BI 인텔리전스, 하이투자증권

<그림 2> 2016년 1월 4일 이후, Amazon, Walmart, Kroger, Supervalu 상대주가 추이



자료: BI 인텔리전스, 하이투자증권

<표 1> 아마존의 주요 M&A 사례 및 매출

1999년 4월	알렉사인터넷(웹 내비게이션 서비스), 익스체인지닷컴(전자상거래)
2008년 1월	오더블(오디오북 서비스)
2009년 7월	자포스닷컴(온라인의류판매)
2010년 11월	퀴드시(소비재 판매)
2012년 3월	키바시스템스(물류 자동화)
2014년 8월	투위치인터랙티브(동영상 스트리밍)
2015년 10월	엘리멘털테크놀로지(동영상 전달 기술 서비스)
2016년 5월	아틀라스에어월드와이드(항공 물류 서비스)
2017년 6월	홀푸드(유기농 식료품)

자료: 언론기사 참고,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김민정, 오대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 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4년 5월 12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3-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견 비율(%)	87.3 %	12.7 %	-